

2/7/16

설교 제목: 본받아야 할 다니엘의 기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다니엘 9:1-23

- (단 9: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절관주** 애 1:1
- (단 9: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절관주** 디전 4:13, 디후 3:15, 렘 25:11
- (단 9: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 (단 9:4)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 (단 9: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 (단 9: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절관주** 스 9:7, 느 9:32, 느 9:34
- (단 9:7)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절관주** 시 51:4
- (단 9:8)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절관주** 애 1:8, 애 3:42
- (단 9: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 (단 9: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 (단 9: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 (단 9: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절관주** 사 44:26, 애 2:17, 욥 12:17, 시 2:10, 마 24:21, 막 13:19
- (단 9: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단 9: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절관주** 렘 31:18, 렘 31:28
- (단 9: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며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 (단 9:16)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 (단 9: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절관주** 민 6:25
- (단 9: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절관주** 시 17:6
- (단 9: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 (단 9:20)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절관주** 시 137:5, 사 56:7
- (단 9:21)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절관주** 왕상 18:36, 스 9:5

(단 9: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단 9: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절관주 단 10:12, 마 24:15

아시다시피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BC 586 년 멸망했습니다.

남 유다는 바벨론의 3 번에 걸친 예루살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했는데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은 BC 605 년 여호야김 3 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의 기물들도 바벨론 신의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침략은 첫 번째 침략이 있은지 8 년이 지난 BC 597 년에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 침략은 두 번째 침략이 있은지 11 년이 지난 후인 BC 586 년에 발생했으며 이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도 점점 쇠퇴해져 BC 539 년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참,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더니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왔던 유다 백성들은 자연히 메대와 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바벨론 지역의 섭정 왕으로 재 즉위했던 원년인 BC 538 년 혹은 537 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 9: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함으로써 BC 539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연합이지 바벨론을 멸망시킨데는 당시 바사보다 세력이 크고 강했던 메대의 공헌이 컸습니다.

다시 말해 메대의 전폭적인 군사적 물질적 지원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지역, 본문에서 말하는 갈대아 지역의 통치를 메대 족속인 다리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가 BC 605 년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온 이래로 열추 70 년 가까운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내고 있던 차입니다.

붙잡혀올 때 10 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이제 80 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다니엘은 여느 때와 같이 성경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다니엘이 읽고 있었던 책을 스파림이라고 쓰고 있는데 스파림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들어 있는 책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스파림에서 발견한 말씀입니다.

(렘 25:7)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25:8)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렘 25:9)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25:10)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렘 25:11)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렘 25:12)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렘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니엘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 년 동안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아의 예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포로 생활을 마칠 때가 다 된 것이 아닌가!!!”

말씀대로라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그동안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평생을 잃어버린 조국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언제나 그리운 나의 조국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땅을 다시 밟아 볼 수는 있을런가?’ 이제나 저제나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던 다니엘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슬픔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환희와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 아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깨닫은 즉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단 9:3) 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상 숭배의 죄, 불의를 범한 죄, 도덕적 문란의 죄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하나로 꼽히는 진정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즈음 벌써 기도의 응답을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 전해 주십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속히 응답을 내려 보내셨을까요?

1.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단 9: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단 9: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단 9:3) 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산 사람인데 그렇다면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대에 포로로 잡혀 평생을 남의 나라에서 나라없는 설움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다니엘의 가장 애닦은 기도는 '제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이 평생동안 올린 기도의 응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고 믿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했습니다.

(단 9:4)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3. 다니엘은 기도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할애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단 9: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단 9: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단 9: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단 9: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2) 다니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단 9: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단 9: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단 9: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율법대로 죄값을 물어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마땅하시다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유다 백성이 목이 곧아 회개하지
않았음을 회개했습니다.

4. 다니엘은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했습니다.

(단 9: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 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유다 백성이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슨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로지 우리의 죄된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5.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단 9: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단 9: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들이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응답하십니다.

(단 9:21)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즘에 내게 이르더니

(단 9: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단 9: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즘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놀라운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즘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에게 전에 보여 주셨던 환상과 함께 지금 주실 계시를 깨닫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런 후 칠십 이레 계시를 주십니다.

칠십 이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한번 다루었는데 예수님 세상에 오신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를 다 보여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인 70 이레가 차게 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는다(24 절)는 메시아의 복음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단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북한이 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성공시켰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미국과 손잡고 사드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이에 중국은 반발하고.....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 몇년 전부터 계속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타락한 주의 종들과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다니엘과 같은 회개 기도를 올릴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심판을 거두시면 감사하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